



**차별에 저항한 영상활동가
故박종필 감독 2주기 추모포럼**

"사회운동 활동가의 건강권을 묻다"

목차

기조발제

지금 여기 활동가의 건강권 04

조한진희 박종필추모사업회

발표 1

**비탄에 빠진 피해자와 함께하는 활동가의 트라우마,
"나는 국가폭력 피해자가 아닌가?"** 08

이원호 용산참사대책위원회

발표 2

활동가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과 대책에 대한 단상 12

강동진 사회변혁노동자당

발표 3

제도 밖에서 나이드는 삶,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까. 16

나영 성과 재생산 포럼 활동가

발표 4

**우리는 일'만'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운동의 지향과 공동체의 일상은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 21

은사자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발표 5

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마음길을 걷다

24

오현정 상담전문가, 외락치유단

발표 6

활동가의 건강권과 노조

28

서상희 의료연대본부 시민건강연구소 분회

발표 7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성과 건강

33

여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설문조사 결과

38

차별에 저항한 영상활동가 박종필 추모사업회(준) 소개

48

지금 여기 활동가의 건강권

조한진희 박종필추모사업회

활동가 건강권 포럼을 제안하며

사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여러 이유로 건강하기 쉽지 않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열망 속에서 일상적으로 과로하거나,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연대하다가 고스란히 고통을 흡수하기도 하고, 조직 문화에 극도로 실망하면서 정서적 손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영상활동가 박종필은 간암 선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질병이 활동과정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을지라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 일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수 많은 활동가들이 활동 과정에서 심장마비나 급성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어 투병 생활을 하거나, 몸이 아프지만 적절한 치료를 미루며 활동을 이어간다. 어쩌면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건강한 활동가가 드물지도 모른다. 그러나 활동가들이 중증진단을 받거나 사망했을 때만 잠시 '활동가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뿐, 적극적으로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활동가 건강권' 논의가 필요함에 대해 운동사회 내 이견은 없겠으나, 조직들은 각자의 현안만으로도 늘 허덕이게 된다. 이에 박종필추모사업회에서는 활동 중에 죽음을 맞이한 활동가 한명의 죽음을 기리는 것을 넘어, 또 다른 활동가들의 죽음을 막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활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가 건강권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활동가 건강권 이슈가 사회적으로 환기되고, 지속가능한 활동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논의의 물꼬가 조금씩이나마 더 트이기를 기대한다.

질병의 개인화

활동가들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면, 건강을 위해 헬스나 요가 같은 운동을 하지 않는 자신을

탓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혹은 불규칙한 나쁜 생활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잦다. 하지만 사실 출퇴근 사이 짬을 내서 헬스장에 가거나,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은 활동가의 조건에서 극히 어려운 일이다. 대체로의 활동가들은 야근이 잦고, 투쟁 사안에 따라 주말도 없는 일이 빈번한데 이런 현실에서 규칙적인 생활과 헬스장은 엄청난 정신승리 속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건강을 개인이 노력하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고는 박종필의 죽음 앞에서도 드러났다. 장례식장에서는 그가 술을 줄이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슬픈 목소리에 담겨 떠다녔다. 그가 술을 많이 마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많이 마실 수 밖에 없었던 여러 환경은 휘발 된 채 술을 줄이지 못했던 나약함을 이야기 하는 것은 선후가 전도된 이야기다. 통상 빈곤할수록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현실은 자원이 적은 이들에게 술과 담배가 저렴한 위안이자 힘겨운 현실을 잠시라도 대응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말한다. 많은 활동가들은 빈곤층에 속하고, 술과 담배가 가장 손쉬운 휴식, 취미, 위안의 수단이라는 점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이다. 사실상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것은 삶의 환경 개선 속에서 가능한데, 환경의 개선 없이 혹은 환경적 요소를 누락시킨 채 개인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명백해 보인다.

건강손상과 말하기의 어려움

적지 않은 이들이 활동과정에서 건강 손상을 겪는다.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뚜렷한 이유가 있는 급성부터, 하나의 원인으로 규정할 수 없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건강손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각자 자신의 질병 이력과 활동 역사를 대조해 보면 길고 긴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나의 경험을 몇 가지만 열거해 보자면, 25년 전 단식 농성을 하며 갖게 위장병은 긴 세월 고통을 낳았지만, 모두 다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침묵하게 됐다. 13년 전 농성장에서 중증장애인 동료를 활동보조 하다가 빼끗한 허리는 지금까지 고질적인 통증을 만들고 있지만, 그 동료가 미안해 할까봐 말하지 못했다. 이후 다소 심각한 건강손상은 10년 전에 발생했다. 2009년 팔레스타인 현장 활동을 갔을 때, 3개월 차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후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과 비정상적 증세가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의료인들은 팔레스타인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독성물질에 노출 된 것 같다고 말했다(팔레스타인은 점령이 장기화 되면서 독성물질에 의한 희귀 난치질환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이후 몇 년간의 투병 생활이 있었고 지금은 투병과 완치 경계의 몸으로 산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과정에서 건강이 손상됐다는 말을 하기 어려웠다. 운동사회에 가해질 수 있는 비난(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들은 현장 연대 활동을 떠나기 전, ‘본 현장 활동은 온전한 개인의 의지와 선택이며 어떤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라는 자필 서약서를 조직과 지인들에게 보내 놓는다. 이는 향후 발생할지 모를 위험과 보수 언론등의 공격을 대비해 조직과 운동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다른 활동가들이 가질 염려와 미안함 등의 감정 앞에서 말하기는 주저되었다. 결국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서야 비로소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쁜 만이 아닐 것이다.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각각의 이유가 있다. 어떤 활동가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다고 말하기에는 자신보다 더 힘든 ‘당사자들’을 떠올리며 말을 꺼내지 못한다.

혹은 자신보다 더 힘든 조건에서 활동하는 다른 활동가 동료에게 미안해서 말할 생각을 못하기도 한다. 건강이 안 좋다고 말하면 동료가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될까봐, 다들 아프고 힘든데 아프다는 말을 굳이 하는 게 미안해서, 어차피 대안도 없는데 동료들 힘만 빼는 것 같아서 등등 각각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을 삼킨다. 우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공감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만든 결과는 무엇이었나 돌아본다. 우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을수록, 활동가들이 아프게 되는 현실은 파악되기 어렵고 결국 변화되기 어렵다.

치료비와 안전망

다들 활동가로서 곤궁한 삶을 '선택'했지만, 아프면 어쩌나 라는 불안 한 자락을 떨치기는 쉽지 않다. 나의 경우도 지난 십년 사이 목돈이 들어가는 수술이 몇 차례 있었고 생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빚을 지지 않을 수 있었다. 동료들이 현금부터 농산물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고, 때로는 나의 건강 조건에서 가능한 '알바'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살 수 있었다. 동료들의 의리가 안전망이자 복지제도였던 셈이다. 또한 일부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지원(여성재단 여성운동 활동가 수술비 지원 사업, 일부 병원들의 활동가 검진 사업 등)에 의존했다. 이런 제도들은 통상 서류 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의 경우는 다행히 지원에서 떨어진 적 없으나, 주지하다시피 선별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사각지대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이를 테면 조직에 속하지 않은 개인 활동가들이나, 상대적으로 활동 이력이 적은 청년 활동가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위축감에 지원 자체를 주저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결국 무상으로 투쟁을 열심히 하자라는, 올바르지만 다소 맥 빠지는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알다시피 무상으로 세상을 완성되기 전에 무수히 많은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아플 것이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떨어질 수 있다. 더 이상 동료들을 맥없이 질병과 죽음으로 잃을 수 없다. 지금 여기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찾아야 한다.

정서적 건강과 안녕

활동가들은 여러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연대하면서 그 고통을 직간접적으로 흡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폭력이나 성폭력 등 다양한 현장에 연대하면서 정서적 고통과 상처를 입기도 한다. 견디기 어려운 분노, 해소되지 못하는 고통은 정서에 남는 독성물질이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활동이 바쁘다는 이유로 정서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외에도 정서적 건강은 조직 내외의 문화에서도 온다. 활동가의 삶이 강박하고 곤궁하더라도 그나마 나은 건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혈연을 비롯한 어떤 관계도 뛰어넘는 '관계'와 '신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점점 그마저도 회의적으로 느껴진다는 이들이 많다. 한국 사회의 강도 높은 불안과 분노 그리고 높은 자살률로 상징되는 헬-조선 현실은 운동사회도 예외일 수

없는 듯하다. 열패감 속에서 갑질, 혐오, 차별이 강화된 사회라고 하는데, 운동 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고통 받는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사회단체에서 조직 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당하는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조직 내 민주주의의 문제겠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 여기의 연결

사실 운동사회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활동가라는 정체성도 복잡하다. 특히 활동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각자의 사상, 가치, 신념, 세대, 문화에 따른 정체화가 다르다. 그 과정에서 내가 최근 각각 쓴 쓸한 현실은 이런 모습이었다. 여전히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 많은 활동가들은 저녁 없이, 주말 없이 치열하게 헌신적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의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고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며 활동하기도 한다. 그런데 적절한 심이 없는 치열함이 존경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신진 활동가들의 진입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최선을 다해 활동해 왔는데 오히려 지속가능한 활동과 활동가 재생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지속 가능한 활동 환경은 활동가 한명 한명의 건강, 복지, 인권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한 것이다. 한 번에 세상의 변혁이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은 거대한 이어달리기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다음 이어 달리기 주자를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지속 가능한 활동 환경을 위해 아픈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해석하지 않는 문화, 아프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문화, 적절한 심이 권장되는 문화, 잘 아플 권리가 보장되는 운동 사회 조직문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미국의 사회역학자 리사 버크만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망이 두터울수록 건강하다고 한다. 조사를 해보니, 사회적 관계망의 연결 정도에 따른 사망률이 1.8배에서 2.7배가량 차이 났다고 한다. 연결될수록 건강해 진다는 의미다.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

비란에 빠진 피해자와 함께하는 활동가의 트라우마, “나는 국가폭력 피해자가 아닌가?”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의 몫?

355일 만에 용산참사 장례를 치러야 했다. 현장 정리를 앞두고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던 시기, 한 인권활동가가 상황실 활동가들의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진지하게 했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이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생각할 수 없는 참사를 겪고, 355일 동안 상상하지도 못한 날들을 견뎌야 했던 피해자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정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이전과는 전혀 같을 수 없는 일상을 마주해야 할 피해자들이 느낄 심리 상태에 비하며, 활동가들이 겪은 내상은 빨간약 처방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활동가들은 이전보다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을 일상 활동으로 돌아가게 된 것 자체가 치유지, 무슨 치유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었다.

‘활동가들이 이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아니지 않은가’, 355일 동안 피해자들의 절망과 절규를 지켜보는 것도, 현장에서 겪어야 했던 경찰폭력과 온갖 모욕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활동가라면 이미 이 정도는 각오했고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활동가로서 감내해야 할 몫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을 하는 것이 활동가의 자세이지, 자신이 그 문제 상태에 놓여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많은 말들과 표현하고 싶은 많은 감정들을 그저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활동가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 참사가 355일의 투쟁으로 끝낼 수 있는 거였다면, 난 여전히 ‘활동가의 몫, 자세’ 짚으로 넘기며

가슴 속 한구석에 쥘어놓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10년이 훌쩍 지났고, 여전히 이 싸움은 지속되고 있다. 보통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아라.’, ‘시간이 지나면 관찮아질 거야’라는 충고를 하게 된다. 언제가 ‘나만 아니면, 유가족들도 잊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잊고 살고 싶다.’며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에게, 활동가인 나는 ‘이거하자, 저거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다. 어느 순간 ‘내가 가만히 있으며, 잊고 살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피해자들의 투쟁은 괴로운 기억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괴로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지켜보며, 이런 활동들은 중용하는 것이 피해자들이 여전히 참사의 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괴로웠다.

시간은 전혀 해결해 주질 않았다. 오히려 시간은 새로운 외상들을 만들어 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시간은 용산참사를 과거의 한 사건으로 잊혀지게 하고 있었다. ‘잊고 살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들은 ‘잊혀질까 두렵다’고 호소한다.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잊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하는 것이, 잊히는 시간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활동가의 부담으로 남겨진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기획해야 하지만, 싸울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조건이 미약함을 마주하면서도, 싸움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에 짓눌릴 때도 있다.

국가폭력의 작동

다큐 <공동정범>은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들의 갈등을 감추지 않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국가폭력의 내밀함을 그려냈다. 사실 두려운 일이었다. ‘이명박 정권에 정면으로 맞선, 용산참사 피해자들’이라는 프레임은, 반이명박 정서가 강했던 진영에서는 대표적인 정권의 피해자이자 ‘투사’의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했다. ‘보상을 노린 떼쟁이들’, ‘시체 팔이’라는 혐오와 공격에 맞서기 위해, 의도했던 안했던 ‘아무 죄 없는 순수한 피해자 철거민’, ‘자본과 권력에 맞선 투사적인 철거민과 유가족들’이라는 구도가 그려지기도 했다. 그런 ‘투사적 피해자’들이 내부에서의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연대하는 이들을 그 갈등에 끌어들이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 연대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떠나게 만드는 것일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실재로 그렇게 떠난 일들이 없지 않았다. 활동가들 역시 ‘피해자다움’이라는 편협한 프레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사실 공공정범에서 그려진 갈등은 1/10도 되지 않았다. 2009년 당시부터 국가는 순수한 철거민(용산4구역 철거민)과 외부세력(연대지역 철거민)을 분리하려 획책했고, 유가족의 요구와 4구역 철거민들의 요구를 분리해 서로의 요구가 서로의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것처럼 몰았다. 그런 분리 획책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각각에게 상처로 각인을 남겼다. 용산4 유족과 연대 유족들의 갈등, 유가족과 4구역 철거민들의 갈등,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갈등, 용산 생존자들과 연대지역 생존자들의 갈등,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과 망루에 오르지 않은 철거민들의 갈등... 유가족과 생존자, 용산과 연대지역, 망루 위와 아래로 교차하는 갈등의 방정식은 겹겹의 갈등구조로 작동했다.

수년간의 투쟁에도 응답조차 없는 국가의 벽을 직면하면서 원망의 대상이 같은 피해자들 사이를 가로질렀다. 심지어 그 원망의 손가락이 활동가들을 향하기도 했다. 거기에 보상이라는 방식의 협상과

최근까지도 진행된 협상 이행의 장기화는 수개로 교차하는 당사자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을 증폭시켰다. 외부의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투쟁보다는 내부의 갈등과 이해다툼을 봉합하거나 이해시키려는 과정, 보상 등 협상 이행과 관련한 이해다툼을 조정하는 활동은 활동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어느 순간 활동가가 아닌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자조감이 괴롭게 하기도 했다. 결국 국가폭력은 지난 10년간 미세하고 내밀하게 작동했다. 피해자들에게도 나에게도.

애쓰지 않으면...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마음 쓰지 마라’는 충고를 듣기도 했다. 속사정을 아는 가까운 활동가들은 언제부터인가 피해자들보다, 그들의 트라우마와 갈등에 개입하는 나를 더 걱정했다.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국면에서도 대응 방법과 역량 사이에서 발 동동 구르며 초초해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갈등, 초조함은 어느 순간 내게 흡수되어 있었다.

‘나라도 애쓰지 않으면’, ‘나마져 마음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지금도 같다. 어쩌면 그건 피해자들이 아닌 활동가인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운동의 정당성만으로 지난 10년의 활동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돌아보지 않으면, 지난 10년의 활동이 부정당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해결사가 아닌 활동가로서의 활동이 부정되지 않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는지도 모르겠다.

아파다고 말해야겠다.

얼마 전 발생한 용산참사 생존철거민 김대원의 황망한 죽음이 지금도 믿기질 않는다. 개중에 가장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기억을 많이 지우려고 노력해서, 기억이 많이 지워진 것 같다”고 말했던 그가 가슴에 묵직한 돌덩어리야 없겠냐만, 둥그스름하게 잘 다듬어서 한 구석에 두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 생지옥과 같았다던 용산의 불타는 망루에서 가까스로 생존해 것이 죄가 되어, 뾰족하고 거친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있던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파다고 말하지 않았던, 잘 지낸다고 생각했던 그의 죽음은 꽤 충격이었다. 참사 이후 가장 바뀐 부분이 뭐냐는 2016년 인터뷰에서 그는 “겪었다”고 했다. “저는 아마 겪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가 꺾인다 해야 하나? 예전에는 삶의 의지가 컸었는데...”라고 야기 했을 때, 이미 그가 그때부터 신호를 보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졌다. 그의 아픔을 알지 못했다는 자책이 들었다. 화장한 그의 뼈가루를 산골하고 온 날, 또 다른 생존철거민의 집을 찾아갔다.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그는 1년여 전부터 전화를 꺼두고 집안에서 홀로 무기력한 삶에 빠져있었다. 병원과 상담에 끌고 가듯 동행하기도 했지만 그 때 뿐이었다. 그의 삶의 내가 책임질 순 없었다. 이제는 1~2개월에 한번 그의 집을 찾아가 10여 분간 초인종을 누르고서야 만나고 오는, 그야말로 ‘생사확인’만 하고 있었다. 장례를 치른 그날도 그렇게 ‘생사확인’ 방문을 했다. 그에게 김대원의 부고를 전했다. “거푸집만 싱싱했지, 속은 골병들고 있는 걸

사람들이 몰라준다.”며, 본인은 조금 나아졌다고 했다. 그래도 나에게 아프다고 말할 줄 알았던 그는 어제 열무를 사다 김치를 담갔다고 했다. 아프다고 말해야겠다.

나는 국가폭력 피해자가 아닌가?

활동가들도 아프다. 비탄에 빠진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며, 그들의 괴로움과 분노와 원망을 흡수한다. 그래서 아프다. 활동가의 자세, 활동가의 뒤통이라고 내면화하며 마음속에 품어둘 수 없는 수준에서도 아파다고 말하기를 주저했다. 몸이 먼저 말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말해야 하지만 여전히 드러내기가 두렵고, 어떻게 말해야할지 잘 모른다.

‘나는 국가폭력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제목을 보내고도, 과도한 질문이 아닌가? 라는 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소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비탄에 함께한 나 역시 그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말해야겠다.

뒹) 뉘두리 같은 글이다. 뉘두리라도 하고 싶은 자리라고 생각했다. 아프다 말하고 아프지 말자.

활동가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과 대책에 대한 단상

강동진 사회변혁노동자당

1.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

1) 경제적 불안정과 빈곤

활동가들은 가난하다. 돈을 버는 업무도 아니고(오히려 자본에 대항하거나, 이윤활동에 대해서는 운동적이지 못하다고 비판받는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활동비'라고 지급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경제적 가난을 감내하거나 적응(?)하면서 생활한다. 이런 생활을 견디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행여나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려와 걱정감에 빠져들게 된다. 혼자라면 견뎌 보기도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상황이 되면 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가난을 견뎌야 하는 상황도, 가난 때문에 활동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 모두 활동가의 건강에는 해롭다.

2) 업무의 불규칙성

활동의 특성상 하루 일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야간노동철폐'를 주장하면서도 밤에 일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회의, 집회 등은 주말을 가리지 않는다.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하기는 커녕 '주말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기도 하다. 그러면서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등은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못한다.

3) 활동전망의 불투명성

가난과 업무의 많음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활동이 이 사회의 진보와 수많은 이들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 가능하기가 힘들다. 어떨 때는 오히려 방해하는 활동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내가 하는 활동이 조직(단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지, 조직의 미래는 열리는 것인지?? 해가 갈수록 그러하기 보단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그것을 극복할 전망은 너무나 불투명하다. 이러한 조건은 활동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활동에 회의를 품게 되기도 하면서 걱정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게 되기도 한다. 노래 가사처럼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4) 업무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처음 생소한 활동을 시작하였는 데, 조직(단체)에서는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절차도, 업무에 대한 교육, 업무에 대한 매뉴얼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모든 업무를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익혀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족한 활동가 수는 개별 활동가에게 '멀티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하고, '슈퍼맨/우먼'이 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런 활동에 적응하기란 너무 어렵다. 활동을 하다 보니,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는 이들을 만나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들에 대해 공감을 하다보면 그들과 똑같이 스스로도 힘들어진다. 다른 단체와 함께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많지만 뜻을 모으고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비슷한 뜻과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일하는 방식도 각자 중심에 두는 내용도 모두 달라, 함께 의지를 모아가기 커녕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수하면서 활동을 해야 하기에 활동가의 '멘탈'은 강철보다 더 단단해야 하지만, 실제 그러하지 못하다.

5) 조직문화의 여러 부정적 문제

'성과'를 쉽게 내기 어려운(양적으로 보이기 쉽지 않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은연 듯이 기업처럼 '성과'를 강조하는 것이 과연 내(활동가)가 바라고 원하는 활동인가 싶기도 하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내가 속한 조직(혹은 공동체)이 그럴 만한 곳인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조직운영은 수평적이고 민주적이기 보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질서로 이뤄져 있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인 의사결정보다 상명하복의 질서도 느껴진다. 조직 내의 의사결정과 절차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무시하고 억압하는 기제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 조직 내의 서로 다른 의견은 제대로 토론되고 공유되기보다, 비생산적인 논쟁을 야기한다고 그냥 묻혀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굴러가고, 주어진 활동은 수행되어야 하고,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굶아가고 그속에서 활동가는 소진되어간다.

2. 대책에 대하여

조직(단체)이 건강해야 활동가도 건강하다. 활동가의 건강은 조직(단체)건강의 전제이다.

활동가들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에 대한 데이터(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그에 따른 질환별 유병율)가 있다면, 그에 걸맞는 대책이 도출될텐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조사 결과는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따라서 활동가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용한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요인들에 맞춰서 이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언급해 보려 한다.

1) 활동가의 '쉼'을 보장해야 한다.

업무의 불규칙성, 저녁이 없는 삶, 주말이 없는 삶이 일상화되어 있는 만큼, 활동가의 '쉼'도 보장되어야 한다. 활동가가 '쉬고 싶다'고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쉬고 싶다고 할 때엔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 유럽에서는 기업조차 노동자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오늘 출근을 못한다. 혹은 일찍 퇴근하겠다'라고 통보하더라도, 이에 대해 그 이유를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허용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2) 건강권을 보장하는 현실 제도는 가능한 보장한다.

지금 현재는 많은 조직(단체)에서 4대 사회보험은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하지 못한 곳에서는 현재의 제도가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4대 사회보험만이라도 보장해야 한다. 법·제도적인 요건을 갖추기 힘든 조직(단체)에서도, 조직의 원칙과 노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정적 곤란 때문에 불가능한 조건이라면,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공공운수노조의 '상생연대기금'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투쟁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재정부담(벌금같은)은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게 좋다.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희생자 구제기금'같은 노동조합재정으로 해결하지만, 단체의 경우는 이런 보장방안이 없다. 투쟁과정 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나 일을 당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지는 않다. 이또한 비용부담으로 가입 못하겠지만 말이다. '공익성 활동가기금'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3) 조직(단체)의 건강은 활동가의 건강과 연결된다.

조직은 활동목적과 내용, 조직운영원리, 사업기획의 방법, 활동가의 주요 업무의 성격과 역할, 그 내용 등을 담은 '기본매뉴얼'을 마련해 두고, 활동가가 처음 활동을 시작할 시, 짧은 시간에 자기 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직문화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원리를 가져야 할 것이며, 활동경험, 직위, 나이 등에 따른 위계적이고 상명하복의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 조직내부의 운영원리와 의사결정절차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동에 대한 활동가의 결정권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문화처럼 실적과 능력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조직활동은 공동체적인 전망과 활동으로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활동가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활동가'중심의 조직활동이 아니라 '회원'중심의 활동으로, 회원이 참가하고, 회원이 주체가 되는 활동으로 조직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가를 포함한 조직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조직의 건강도 유지되고 장기적으로 조직전망도 열릴 것이라 여겨진다. 조직의 건강과 전망은, 활동가의 건강과 미래의 삶과 깊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한다.

제도 밖에서 나이 드는 삶,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까.

나영 성과 재생산 포럼 활동가

올해 초, 나는 8년 6개월 동안 활동했던 단체에서 퇴직했다. 오랫동안 재정상황이 어려웠던지라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는 어려웠고, 한 달 치 활동비를 퇴직금을 대신하여 받기로 했다. 그나마 몇 년 째 단체 상황을 고려하여 8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었기에 퇴직할 때는 삭감 전 활동비인 120만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런저런 서류들을 준비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첫 자격심사 상담을 받던 날, 상담사 분이 서류가 이상하다고 했다. 주 5일을 일했는데 월 급여가 8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주5일 근무했다고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이었다. 문제는, 그나마 단체에서 4대 보험을 다시 가입한지가 겨우 1년 가까이 되어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따지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간당간당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사실상 하루 10시간, 12시간 가까이 일했지만 최소한 8시간 기준 주 5일을 일했다고 해도 간당간당한 마당에, 주 40시간 일해서 80만원을 받았다고 증명하자니 단체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이 되고, 내가 받던 임금 수준에 맞춰서 주 20시간가량 일했다고 맞추자니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미달할까봐 걱정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행히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이 하루 노동 시간에 상관없이 노동일수로 계산되는 것이어서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8년 6개월의 활동기간 중 5년의 기간이 사라진데다 그조차 급여 수준에 맞추느라 반 토막 난 실업급여를 3개월 동안 받았다. 그러나 누굴 탓하겠는가. 누군가의 말마따나 활동가의 좋은 점은 사장이 없다는 것이고, 나쁜 점은 사장이 없다는 것이니. 8년 동안 활동하면서 후원금을 제대로 못 모은 것도 나이고, 재정 상황 열악해지면서 당분간 활동비를 줄여야겠다 결의한 것도 나요, 그와 함께 4대 보험도 당분간 중단하자 결의한 것도 나였다. 그 날, 실업급여 자격 인정이 안 될까봐 갑자기 마음이 분주해져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다가 집에 가는 길에 눈물이 났다. 이런저런 생각에 막 서러운 마음이 들다가, 다른 반상근 활동가들은 더 열악한 상황이었던 걸 생각하니 괜히 더 큰 부채

감만 밀려왔다.

학생운동으로 대학 시절을 보내고 16년을 활동가로 살아오면서 적은 수입 규모에 맞춰 생활을 유지하는 건 충분히 익숙해졌다. 그러나 이제 막상 마흔이 되니 현실의 문제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서 활동가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이 드는 삶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지금은 그래도 강의나 원고 수입이 있어 버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활동가를 소진시키는 활동 구조 속에서 맞이하는 40대

활동가들의 신념과 열정은 사회운동을 유지시켜 온 가장 중요한 동력이지만 그만큼 활동가들의 생계 문제는 늘 후순위로 밀려나 왔다. 활동가니까, 돈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자신의 신념을 밀붙 삼아 달려온 많은 활동가들은 크게 아프거나 다른 구체적인 삶의 조건들 속에서 문제에 부딪힐 때, 그제서야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다.

몇 년 전에는 어떤 일을 계기로 이야기를 하다가 활동비를 80만원 받고 있다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더니 그 글에 “그래도 80만원이나 받다니”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청소년 활동을 비롯해 작은 규모의 단체 활동가들이 남긴 자조 섞인 댓글이었다. 그나마 나처럼 강의나 원고 수입이 있다면 사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조차도 단체로 다시 환원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단체에 내는 돈이 부가 수입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누구보다도 자발적으로, 자기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일하고 있지만 직업 카테고리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활동가들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직업군이다. 직업군 카테고리에 없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보험이나 대출, 그 외 여러 사회 활동에서 상당히 불리한 요건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

활동가들에게는 월급도 급여가 아니라 ‘활동비’다. 활동하며 받는 급여를 월급이라고 여길 때와 활동비라고 여길 때의 의미는 확실히 다르다. 활동가의 활동비는 노동한 만큼의 대가, 성과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활동가의 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생산 비용 같은 개념에 가깝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체 활동가의 활동비는 회원들의 후원금이나 프로젝트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활동가들은 또 다른 부담과 의무를 지니게 된다. 소위 ‘활동판’ 전체를 볼 때, 그나마 단체에서 매월 급여 성격의 상근활동비를 받는 활동가의 비율도 그리 높지 않지만 그 와중에 후원을 통해 단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단체는 매우 적다. 때문에 단체 상근 활동가들은 언제나 후원회원 모집과 관리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프로젝트 의존도가 높은 경우 실무 처리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심각할수록 활동가들은 장기적인 전망을 두고 활동하기 보다는 대중적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분명한 활동, 매 해 성과가 분명히 드러나는 활동에 치중하게 된다.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고 30대 중후반, 40대 정도를 맞이했을 때, 활동하면서 쌓인 기획 역량과 실무 역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망은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공허한 마음이 밀려오면서 잔뜩 소진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단체의 재정 상태가 나은 편이어서 교육

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몇 년 동안 휴직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거나, 퇴직 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에는 그럴만한 역량이나 여유가 없다. 결국 많은 활동가들이 힘들어도 그대로 버티거나 별다른 자원도 없이 혼자서 다른 길을 찾게 된다. 만약 상근 활동가도 아니고 다른 불안정 노동을 함께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거나, 아예 활동비라는 걸 기대할 수 없는 활동을 해왔다면 당연히 상황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

제도 밖에서 맞이하는 활동가의 40대, 아프지만 않으면 다행일까

그래도 아프지만 않으면 다행일까? 제대로 챙겨 먹거나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체력을 소모시켜온 활동가들, 집회와 원고와 각종 실무, 연대활동 등으로 자기 몸을 챙길 겨를이 없었던 주변의 많은 활동가들에게 우울증과 불안증, 호르몬 이상, 위장 계통의 질병, 척추신경 계통의 질병은 단골손님이다. 제대로 된 건강검진은커녕 해마다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무료 검진마저 제대로 챙겨 가지 못하는 활동가들이 태반이다. 그래도 어찌어찌 버텼다 해도 4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몸의 차이가 현격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다들 그런 몸들을 하고서는 “그래도 아프지는 않아서 다행이야”라고 말한다. 활동가들에게는 ‘아프다’는 기준이 너무 높다. 아니, 어쩌면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말 “아프다”라는 수준이 될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때일 테니까.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험이나 청약저축이 있는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주택 보증금이 있는지, 결혼을 했거나 동거하는 파트너가 있는지, 원가족에게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혹은 부양해야 할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등에 따른 자원의 차이는 30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소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의 자원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활동하면서 크게 아팠던 적이 있다면, 그 후유증으로 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면, 애초에 원가족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부양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이성애-혼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수입이 일정치 않아 대출 받기도 쉽지 않고, 사회생활 초년기에 마련한 주택 보증금이 아주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면 활동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늘 불안을 담보로 하는 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제도 밖 삶에 가까이 있는 까닭은 ‘활동가’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직업군의 카테고리에 있지 않고, 활동가라는 정체성 자체가 제도 밖에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활동가들이 정작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무지해서이기도 하다. 그런데 가진 게 없을수록 나이가 들면서 제도적 지원은 점점 중요해진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한편에서는 활동가들이 제도적 보장 체계 안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대안은 단체의 상근활동가이거나 어느 정도의 재정적 기반을 다진 단체에 한해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도 꾸준히 활동가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에게 제도적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있을까?

어떤 대안을 구상해볼 수 있을까?

사실 위에 쓴 이야기의 대부분이 내 얘기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내 친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몇 달 전 나는 어느 월간지의 칼럼에 이제 나에게서는 롤모델을 삼을만한 쿼어 선배도 있고,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쿼어 동료들도 있다고, 그래서 쿼어로서 나이 드는 게 더 이상 두렵지만은 않다고 썼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활동가의 정체성으로 가져와보면 똑같이 얘기하기가 어렵다. 물론 활동의 롤모델이 될 만한 활동가들은 있지만 말이다. 왜 그럴까? 막연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쿼어 동료들은 뭔가 쿼어 커뮤니티 전체에 자원이 될 만한 기반과 삶의 방식에 대한 여러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활동가 동료들은 여전히 활동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는 느낌일까. 물론 지금까지 재단을 통해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거나 활동가 조합을 만든다거나 하는 등의 시도가 이어져 오기는 했지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폭이 협소하고 활동가들이 직접 자원과 삶의 모델을 만들고 순환시킨다기 보다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 방식이어서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진다.

활동가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삶에 집중하는 관계와 자원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활동가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들이 스스로를 위해, 서로를 위해 자원을 만들고 순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2016년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공동 페미니즘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왔던 멕시코의 활동가들은 '활동가 자기 돌봄'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간단한 워크샵을 소개한 적이 있다. 활동가들의 이런 고민은 비단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해외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활동가 자기 돌봄의 필요성과 관련 워크샵이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활동가 자기 돌봄의 원칙은 이런 것들이다.¹

하나, 자신의 몸이 요구하는 것들을 존중하라.

둘, 자신만을 위한 커뮤니티를 찾아라. (자기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셋,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들을 제한해라.

넷, 트라우마가 되는 경험들을 피하라.

다섯,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라.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이런 자기 돌봄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단순한 걸 못하고 있는 게 비단 한국의 활동가들만은 아닌가보다. 당연하게도, 이 원칙들은 개인 활동가들이 노력한다고 될 문제만은 아니고 이 원칙들의 중요성을 조직이 이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당장에 모든 이슈들을 쫓아가야 하고 100% 헌신하여 운동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압박이 활동가 자신과 조직 사이에서 계속해서 악순환 될 때, 활동가들은 지속가능한 역량을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된다.

한편,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시도되고 있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도 있다. 공동의 공간을 마련하고, 각자가 가진 자원을 나누어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진료 활동을 하기도 하며, 텃밭을 가꾸

1) BEGINNER'S GUIDE TO SELF-CARE FOR ACTIVISTS <https://yourdream.liveyourdream.org/2018/07/beginners-guide-to-self-care-for-activists-how-to-avoid-burnout/>

어 공동 부역을 만들거나, 요가, 명상,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같이 나눈다. 이 네트워크와 이들의 공간에서는 활동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삶에 필요한 자원을 나누는 것이 주가 된다. 이런 활동가들의 커뮤니티를 곳곳에 만들면 어떨까. 이러한 일들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서로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자원을 만들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어렵겠지만 이제 이 건 나의 노후계획이기도 하다. 이런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활동의 자원과 삶의 자원들을 더 많이 순환시킬 수 있는 활동가들의 상호부조 체계를 만들고 싶다. 물론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챙길 수 있는 활동기반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그에만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기돌봄과 자원의 획득이 가능한 활동가들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려면 우리가 활동에 전략을 짜듯이, 우리 자신의 자기 돌봄이 보다 존중되는 활동 방식과 이를 반영하는 조직운동을 위해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데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를 굳이 강조하자면, 제발 모든 단체와 조직들은 활동가의 역량보다 그들의 삶에 관심을 좀 가지자.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어야 하고 적어도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생계와 일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걸 보장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이 없다면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먼저 마련해 나가면서 활동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안다. 다들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만’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운동의 지향과 공동체의 일상은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

은사자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작년 한 해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_____이/가 직접 만드는 조직문화>라는 워크북을 만들었다.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인지, 조직이 용인하고 허용해온 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성폭력 사건이 보다 정의롭게 해결 가능하기에 조직문화의 관점에서 성폭력을 풀어보고 싶었다. 이런 고민은 꽤 오래 전부터 해오던 것인데, 2012년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토론회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공동의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어느 정도 자발성을 가진 구성원이 모인 결사체라는 점에서, 공동체 내 성폭력은 다른 성폭력과는 다른 고통을 초래하고 다른 해결 양상을 보였다. 성폭력은 ‘사건’이기 이전에 조직의 남성 중심적 문화의 누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건 이후 어떤 조직문화로, 어떤 공동체로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해왔다.¹ 또, 2016년 말부터 이어진 #00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로 ‘성폭력이 가해와 피해자 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공동체 문화를 점검해야한다는 생각에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토론회 자료집도 읽었다. 그런데 나아가서 어떻게 문화를 점검하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지 어렵다’라는 상담전화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동체로부터 몇 차례 받게 되었다. 종종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라는 이름의 강의를 요청 받기도 했으나, 조직문화는 소위 ‘전문가’가 진단해주고, 솔루션을 주는 형태로 바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 고민할 때 변화한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찬찬히 조직문화를 점검해볼 수 있는 도구인 워크북을 만들게 되었다.

워크북 작업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고 조직문화를 고민하는 11명의 활동가를 인터뷰 하

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2012, 9p-10p

였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동료들 만나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 공동체와 조금씩 합을 맞춰가고 있는 사람, 공동체 조직문화 한복판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으로서 새로운 구성원과 어떻게 만나야할지 고민하는 사람 등 다양한 ‘경험치’를 가진 다양한 연차의 공동체/구성원을 만나고자 하였다. 11명의 인터뷰이 중에는 민우회 1-2년차 활동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2명의 활동가가 섭외된 데에는 웃지 못 할(?) 에피소드가 있다. 워크북을 만들면서 조직문화가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 하고 있을 때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의 조직문화는 무엇이라고 느끼는지 우리 이야기부터 해보자며 두 차례 내부 집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야기를 신나게 하던 중 새삼 상담소 활동가는 이미 최소 3년, 길게는 17년 동안 활동을 해온, 민우회라는 공간이 익숙해진 사람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여 당시 1-2년차 민우회 활동가와도(민우회는 3개의 사무처 팀, 2개의 부설기관으로 이뤄져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해보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1-2년차 활동가가 감지하는 것에는 상담소 활동가가 느끼는 조직문화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 인터뷰이는 “무엇이 낯선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꾸 들어야 되죠. 평소에 불만이 있고 할 말을 못 했던 사람들도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가 정리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듣는 기회를 갖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라고 말했다.² 즉, 모두에게 몫이 있는 것이다. 말을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한다. (“신입활동가가 뭘 얘기를 했는데 기존 구성원들이 어떤 집단성을 형성해가지고 되게 방어적으로 이야기 하게 되면, 잘 풀리지 못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거든요. 그 활동가의 얘기에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조직문화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³, “나한테 익숙한 거라도, 다른 사람이 낯설게 느끼는 게 무엇인지 듣고 일단은 ‘그럴 수 있겠다’까지 하는 것, 그걸 잘 해야 돼요.”⁴) 말하는 사람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한다. 또, 스스로도 이 조직 구성원으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이야기 해야한다. (“문제제기 하는 사람이 조직과 자신을 분리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나도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다’를 아는 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구요. 기존의 문화가 맞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지켜보고 조금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기 몫이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 얘기를 하는 사람도 얘길 할 때 ‘이 조직이 안 들을 것이다.’라고 방어벽을 치고 얘기하지 말고 처음엔 얘기를 그냥 다 해봐요.”⁵)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변화가 가능하다.

페이스북 시민사회활동가 대나무숲 페이지에(이하 대나무숲) 올라오는 글의 대부분은 조직문화 혹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어떤 이유로 조직을 떠나는지 말해줄 애정조차 떨어졌다는 활동가, ‘이렇게는 일 못 해요’라고 외치는 활동가. 이 조직에서는 더 이상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없어서 떠나

2)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시민사회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워크북: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_____이/가 직접 만드는 조직문화>(이하 워크북), 2018, 33p

3) 워크북, 38p

4) 워크북, 52p

5) 워크북, 53p

는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대나무숲에 올라온다. 시민사회가 무엇인지는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반 기업과 차이를 찾아본다면 시민사회는 '정의(justice)'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11명의 인터뷰이를 인터뷰 하면서, 시민사회단체 조직문화와 일반 기업의 조직문화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시민사회단체도 여전히 담배 이슈가 이야기 되고, 다과는 여성 활동가의 몫으로 여겨진다. 회계, 조직 운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는 여성 활동가가 주로 배치되고 남성 활동가는 주로 정책이나 사업을 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는 다르다', '회사와는 다를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조직문화에 문제의식 느끼는 구성원은 더 어려움을 겪는다. 문제제기 하는 것이 '조직'에 대한 문제제기로, 조직이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질까 문제제기를 꺼리게 되고, 그러한 상황 자체에 또 어려움을 느낀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조직에서조차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감을 마주하기도 한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만난 반가움은 잠시, 구성원을 동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속에서, '시키는' 일을 단순히 처리하는 실무자로서만 기능하게 두는 조직문화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 보고자 한 문제제기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지쳐간다.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정말 아니었다. 민우회도 올해 조직문화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을 하며 새삼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느낀다. 조직문화 점검 활동을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라고 이름 붙였다가, 저렇게는 웬지 어딘가 완벽히 성평등한 조직문화라는 게 있고, 거기를 향해 달려 가야하는 느낌이라 다소 압박스럽다(!), 조직문화 점검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데 만들기, 로 끝나니 만들고 나면 끝나는 거 같다, 이런 이야기 나누다 <조직문화 스트레칭>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들 이 활동에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이야기 해봤다. 놀랍도록 가지각색인 여러 활동가의 기대를 들으며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의미를 찾았다.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간 내어 확인하는 시간의 귀함을 깨달았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말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말하기 쉽지 않다. 크게는 조직문화 점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침에 출근해 인사할 때부터 회의 안건지를 만들 때, 점심을 먹을 때, 누군가 실수 했을 때, 손님이 왔을 때, 퇴근을 할 때까지. 출근부터 퇴근까지(혹은 퇴근 이후에도) 조직문화가 작동되고, 그렇기에 매순간 점검해야하는 것이지만 '일상 속에서 때마다 잘 챙겨봅시다'라고 하면 바쁜 활동과 현안 속에서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운동의 지향에, 바쁘고 정신없이 활동하는 현실에, '에이,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마음을 비집고 올라오는 목소리에 기대지 않는 것이 (어렵지만) 필요하다.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향해 갈 때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활동할 수 있고, 조직에 오래 남아 활동가로 살아갈 수 있다. 지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내 안에, 나와 동료의 관계 속에 녹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꾸준히 살펴봐야한다. 조직문화는 이미 만들어져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가진 공동체도 언제, 어떤 순간 '무너질지' 모른다. 구성원 모두가 각자에게 몫이 있음을 알고 고민할 때 조직문화는 변화하고 갱신될 수 있다.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시민사회 공동체 안과 밖에서 활발히 토론 될 수 있길 바란다.

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마음길을 걷다

오현정 상담전문가, 와락치유단

1. 반갑습니다.

사회활동가와 노동자를 위한 심리치유네트에서 활동하는 상담자 오현정입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활동가 건강권 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건강권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활동가와 노동자를 위한 심리치유네트워크 통통톡(通統talk, 이하 통통톡) 활동을 소개하면서 사회활동가들의 마음돌봄에 대한 제언을 간략히 하고 싶습니다.

통통톡은 2016년 7월 1일 출범한 개인, 단체 네트워크로 마산창원산재추방연합, 마음의숲치유센터,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위원회, 길목협동조합의 '심심'프로젝트팀, 심리치유공간 '와락', 영등포산업선교회 심힐링센터, 전북일하는사람을위한심리상담센터 마음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교구노동사목,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충남노동인권센터 두리공감, 폭신평신희동조합(가나다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들은 오랜 시간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통통톡은 노동자와 사회활동가의 개인 상담과 장기투쟁, 파산으로 인한 실업 등 노동자들의 심리적 위기에 개입하는 다양한 치유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2018년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상근활동가들의 마음건강검진과 청년 사회활동가 마음돌봄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상당한 공감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2. 사회활동가의 현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한 실태조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80%가 활동가 충원이 쉽지 않다고 밝혔는데 낮은 임금(86.2%)과 열악한 근무조건(42.5%), 비전의 부재(19.5%), 낮은 인지도(18.4%) 등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김동춘, 2014). 또, 규모가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상근자로 활동하는 이들도 있지만, 상근자로 어느 곳에 속하지 않고 개인활동가로 활동하는 경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감과 소속감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활동하면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기도 합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함은 ‘동지’라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뼈곡히 채워져 있는 온갖 집회, 문화제에 내가 몇 명을 조직해서 데려갈 수 있는지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병든 몸과 마음을 이겨내는 건 내 몫이고, 얼른 나아서 행사에 “동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동지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활동가를 위한 대나무숲에서 옮김)

상담실에서 만난 활동가들은 지쳐 있었고 불안과 우울, 무기력감과 분노가 높았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과 헌신으로 내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느낄 새 없이, 사회활동가로서 스스로의 결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책을 하거나 그래도 동지들과 잘 이겨내자며 자신을 다독이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떠날 것을 고민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막막함을 호소하며 활동가로서 계속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도 무겁습니다. 엄정한 기준으로 자기 헌신을 강제하면서 짧은 쉼을 누릴 때도 동료나 투쟁하는 이들에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경우도 많아 긴장이 끝없이 지속되면서 수면장애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통의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절규에 찬 이야기를 보고 듣는 사회활동가들의 정서감염과 대리외상은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조차 알 수 없어서 탈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청년활동가의 경우 10년 안팎으로 활동을 한 이들은 세상과 부대끼며 부식되듯이 몸과 마음에 피로감이 쌓여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거나 염려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뜻을 펼치는 동료나 선배, 위계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실망감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3. 마음돌봄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 사회활동가들의 소감을 옮겨봅니다.

“상담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으로 나타났던 증상들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상담의 목표였던 마음의 힘 기르기가 미력하나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매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 물어봐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담받기 전에는, 잘한 일,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스스로에게 칭찬하거나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으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나는 나에게 참 못되게 굴었다’라는 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 물어봐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혼자 답을 찾기 어려울 땐,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내 부족함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첫 걸음을 뗀 것 같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활동과 쉼의 균형, 도전과 좌절의 균형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니 성장한 시간이었지요. 사회활동가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상담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현대의 경험이 부족한 시대에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갈등 상황에서 되풀이되는 괴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마음의 해우소가 필요했는데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주변에도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요즘의 내가 보입니다.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아직도 난 계속 같은 어려움 속에서 찢찢 땀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노동을 하는 사회활동가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과노동, 스트레스, 2차 트라우마 등에 노출되며 소진과 폭력 상황에 노출되는데 이를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가져가 어려움을 겪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진단되지는 않지만 신체적 정서적 고통에 노출되어 있으나 어떻게 이를 직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은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모든 활동가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익히면 좋겠습니다.” (2018년 서울시 청년 마음돌봄프로젝트 참가 후기에서 옮김)

4. 마음돌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회활동가 개개인의 마음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심리적인 안전감을 경험하면서 내면의 힘을 회복하고 성장을 돕습니다. 또, 스트레스 감내력과 대응력을 높이고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자기돌봄을 안내받고 연습할 수 있어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 단체에 자기돌봄과 건강한 치유 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활동가는 열악한 처우로 인한 어려움만이 아니라 위계적인 조직문화, 조직 내 민주주의, 관계에서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정서전염이 만연한 노동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사회활동가는 정서감염과 공감피로도가 높는데 일, 성취 지향적인 조직문화에서 소진되면서 존재로서 존중되는 경험보다 대상으로 착취된다는 상처를 안고 활동을 그만두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마음돌봄은 상호 연결감을 회복하고 조직에 대한 신뢰감을 확인하면서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사회활동가들이 스스로 마음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돌봄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건강검진을 제안드립니다.

통통톡은 2018년도에 이어 올해도 마음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검사와 전문가와의 깊이 있는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마음건강검진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 현재 내 몸과 마음이 어떤지 안부를 묻고 일상에서 몸마음 돌봄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기술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마음건강검진 결과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개입, 심리기술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면서 연습 모임, 자조모임 등 마음돌봄의 연결망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6.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나 성장을 지원할 때 마음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가들이 맹목적인 이타주의보다는 건강한 심리적 경계를 세우고 자신과 타인을 함께 돌볼 수 있는 훈련, 정서전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훈련, 착취 앞에서 건강하게 'NO'라고 할 수 있는 자기주장 훈련, 건강한 소통을 위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활동가들의 역량강화교육에 이와 같은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기분 전환만이 아닌 심리적 요인을 목표로 한 개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공감의 힘과 상호 지지의 문화를 경험하며 자신의 심리적 자원을 발견하고 집단원들과 지지와 연대로 심리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경험을 통해 소진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 각 단체나 조직에서 치유나 마음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누구나 그래', '마음을 좀 굳게 해', '시간이 가면 나아질거야', '의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을 방치하지 않고 특히 활동가들의 정서감염과 대리외상, 소진 등으로 인한 마음건강은 우리 사회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아픔과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하는 분위기와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8. 억압과 고통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나중까지 함께 하는 사회활동가는 우리 사회의 치유자입니다.

그렇기에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처우에도 소명감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 활동가들을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픈 것은 아프다 말하고 힘든 것은 힘들다 속마음을 나누며 건강한 마음돌봄과 치유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활동가들의 마음건강은 지켜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지요. 통통톡은 사회활동가들의 대나무숲을 치유의 숲으로 만들어가는 길에 따뜻한 동행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번아웃 증후군이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탈진, 고갈되어 분노에 가득 차거나, 무기력해지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다 불타서 없어진다(burn out)이라고 해서 연소 증후군, 탈진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기돌봄으로 번아웃을 예방하세요~

<번아웃 증후군 테스트>

	내용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쉽게 피로를 느낀다.					
2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된다.					
3	아파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4	일이 재미없다.					
5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					
6	이유 없이 슬프다.					
7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8	짜증이 늘었다.					
9	화를 참을 수 없다.					
10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느낀다.					
11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12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					
13	만성 피로, 두통, 소화 불량 이 늘었다.					
14	자주 한계를 느낀다.					
15	대체로 모든 일에 의욕이 없다.					
16	유머 감각이 사라졌다.					
17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힘들게 느껴진다.					

*65점 이상이면 번아웃증후군이 우려됩니다. 마음건강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활동가의 건강권과 노조

서상희 의료연대본부 시민건강연구소 분회

1. 활동가가 노동자인가?

활동가의 건강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노동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안할 수 없다. 우리 연구소는 100% 개인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사단법인 독립민간연구소이다. 처음 연구소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 활동가가 어떻게 노동자인가? 사용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다. 사전적으로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¹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노동자이다. 우리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어, 타인의 노동으로 이윤을 축적하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하는 생활인이다.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면 생활인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단 말인가? 시민건강연구소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이자,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균형추를 맞추려고 노력하며 활동하고 있다.

활동가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건강권 관련 요구는 활동가에게도 당연한 권리이다.

2. 시민건강연구소 노동조합

시민건강연구소는 건강권을 기초로 우리 사회와 사람의 삶을 고루 조망하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진보적 연구 단체이다. 시민건강연구소 노동조합은 2012년 7월 11일에 설립했다. 설립 목적은 사회적 연대 차원이 가장 컸고, 두 번째는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향후 연구

1)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정의

소 규모가 커질 것에 대비한다면 민주적 조직 운영을 위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 당시, 상근인력 2명으로 정말 작은 조직이었지만 상급단체인 의료연대본부에서는 우리에게 ‘분회’를 내줬다. 진보적 연구 단체이자 시민 단체라는 특수성을 높게 사주었기 때문이다.

시민건강연구소는 개인 후원자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는 후원자에 대한 책무성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기본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하의 여러 조직들과는 조직 형태도 다르고 운영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 우리는 주체적인 노동자이자 활동가로서 ‘숙고’와 ‘논의’를 통해 ‘합의’하는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으로, 임금과 복리 수준을 결정한다. 동시에, 후원자에 대한 책무성으로, 후원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의 고민도 함께 한다. 주 40시간 노동을 명시하고 있지만 활동가이자 연구자의 특성상 그럴 수 없다. 때로는 며칠씩 잠을 못자기도 하고,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진행이 될 때면 감정과 체력의 소모가 클 때도 많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이 있고, 기본 규정이 있는 것은 조직적으로 활동가의 과한 소진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역할을 한다.

2019년, 여전히 우리는 100% 노조 조직률을 자랑한다. 이제는 상근직원 5명에 비상근직원 1명으로 총 6명이다. 논의와 합의를 통한 결정 방식을 채택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느슨한 상호 견제와 긴장이 유지되어야 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조직 내 문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 내 문화는 논의하고 합의하는 민주적 운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고수하고자 노력할 때 가능하다.

시민건강연구소의 ‘좋은 노동 공간’을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으로부터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 (함께 일하는 노동공간) 원칙적으로 파트타임과 재택근무는 하지 않는다.
- (분절적 노동 방지)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노동에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정적인 노동) 정규직을 원칙으로 한다.
- (복리후생) 근로기준법 적용은 5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한다.

2)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함께 만들어간다.

3) 행정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한다.

[참고] 시민건강연구소 노조설립 안내문
<http://health.re.kr/?p=434> (2012.07.16.)

[연구소 소식]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 수요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분회라는 이름으로 연구소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가 노조를 설립한 이유는 단지 연구소 내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노동조합 전체의 힘을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여 절박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여러 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투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연구자, 혹은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기관 노동자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자신을 노동자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고, 특히 사회단체의 경우 분명한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회진보의 방식과 내용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과 노동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다른 노동자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열심히 연구활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노동조합비를 납부하고, 다른 노동조합과 함께 할 수 있는 연대투쟁에 조금씩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손쉽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노조활동이 노동자의 삶에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라는 점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모두가 같은 노동자로서의 연대의식을 꾸준히 쌓아가는 과정에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2018년 3월,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시민건강연구소로 법인명 변경.

3. 활동가의 건강권

아마티아 센은 '건강'을 하나의 기능(functionings)이자 능력(capability)으로 보았으며, 모든 사람이 '동등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기능이란 삶을 이루는 기본적인 영양 섭취, 좋은 건강 유지, 피할 수 있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조기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행복한 생활, 자기존중 확보,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더 복잡한 것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기능은 가능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이는 곧 성취할 수 있는 자유와 연결된다. 즉, 건강은 그 자체로 삶을 구성하는 핵심기능인 동시에 다른 기능을 선택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자유와 연관된다.² 이처럼 건강은 삶의 현재 상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

흔히 건강 결과는 사회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이 겹쳐서 일어난다. 예를 들면, 결핵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야 걸리지만, 어떤 사람이 왜 결핵균에 노출되었는지는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영국 런던 대학의 브루너와 마멋 교수는 질병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는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이것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다고 보았다. 사회구조가 질병과 사망, 삶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작용은 물질적 요인, 사회 환경, 노동환경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한다.³

건강의 가치는 다른 인권 행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본적 인권이며, 활동가에게 역시 이러한 건강할 권리는 예외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활동가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수단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노동환경의 개선, 보완 등에 단체 내 자정 노력 역시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노동자라는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는 사회적 연대의 일환이기도 하며, 더 나

2) 김창엽 (2009)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

3) 김창엽 (2013) 「건강할 권리: 건강정의와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운동의 차원이기도 하다.

4. 노동조합 활동 성과와 건강권 보장

노동조합 활동의 결과로 얻게 된, 연구소 활동가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성과로는 대체휴무제와 주4일제 도입이 있다. 연구소에서는 2019년부터 대체휴무제와 주4일제(주40시간)를 실시하고 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렇듯이 연구소도 야근이 많은 편이다. 야간에 워크숍, 강좌, 세미나, 회의 등의 일이 많다. 따라서 주40시간인 노동자 법정근로기준시간을 근거로 매주 수요일을 공식 휴무일로 지정했다.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식적인 행사로 일을 한 경우는 다른 날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임금 외 다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대신 '쉼(휴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른 노동자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노동조합 활동 차원에서 집회, 교육 등을 나간 경우는 자율적 노조 활동에 해당하므로 대체 휴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연구, 사회운동)의 특성상 휴무일에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따로 대체휴무를 신청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 보장된 제도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공식적인 제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쉬려고 노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연구소에 노동조합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현실에서 작동가능하게 노력하는 것 역시 노동조합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연구소를 포함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충분히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많은 활동가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을 한다. 이 정도를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낫 부끄럽고,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힘들다는 의식도 하지 못한 채,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 그냥 넘어가게 된다. 나 역시도 그랬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구조와 분위기속에 있었지만, 만약, 내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고, '노동자 정체성'으로 의식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노동하는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제기 하지 못했을 것이고, 다른 조합원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지 못했을 것이다. 발언권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자발적으로 불만 없이 감수해 온 일들을 후배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에 사회운동의 지속성을 고민해 본 활동가라면,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할 것이다. 나도 모르게 자기검열하고 있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견제 장치는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은 존재 그 자체로 의식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연구소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이 된 구조적 장치 중 하나로 이사회 '구성'을 들 수 있다. 연구소의 이사회는 시민사회계, 노동계, 공공의료계, 예방의학계, 약학계, 간호계로 각 분야별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계는 주로 외부 노동운동 인사 중에 추천하여 1인을 선출한다. 또한, 노동내부 1인, 즉 연구소 노동조합 조합원 중에서도 1인을 선출하여 포함한다. 이처

럼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사회 구성에 포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사회 구성은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을 준 장치였다. 한편, 이처럼 이사회 구성에 노동계를 포함시키는 작업은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쉽게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단체 내 노력은 우리가 노동자라는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민건강연구소 활동가들은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고 공유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운동을 한다. 동시에 우리는 사회가 좀 더 좋게 변화해 가는 길에 노동자로서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의 방식을 변화해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운동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이 활동가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생각한다.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성과 건강

여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1. 활동가 안전망을 꿈꾸며 동행을 창립하다.(2013. 10월)

저임금과 과로, 전망 부재 속에서 떠나는 활동가들,
'동행'은 활동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과 치유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행'은 공익활동가의 경제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활동가의 품위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제도에 관해서는 가장 먼저 변화시켜 온 활동가들은 정작 자신을 돌보거나 삶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에서 항상 밀려났다.

2012년 한 활동가의 죽음 당시 약간의 모금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시민사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위기의식 속에서 활동가 안전망 부재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들어갔다. 활동가 스스로 서로 돕고 지원하며 연대하는 조직, 활동가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의 창립을 통해 활동가 안전망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구분	긴급지원 (재해, 상해)	대출 (주거, 생활, 학자금)	보험 (질병, 상해, 사망)	공모사업 (건강검진, 자녀학자금)
빈도	12	12	12	7
백분율	40%	40%	40%	23.3%

서울지역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가 복지수요조사 연구(2015)

조사에 따르면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안전망은 크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것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요구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¹은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경제적 어려움, 사고, 질병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과 위기 대처 능력을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망, 상호부조,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의료, 재충전, 교육 등의 복지지원을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2. 공익활동가 위험을 줄여주는 안전망(2015~2019년 현재)

(1) 상호부조사업

활동가 경조사를 지원하는 상호부조사업은 활동가들이 매월 납부하는 상호회비를 상호부조기금운영을 통해 암 진단을 받거나 재활기간 중에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사망 시 부조금을 지원한다. 내가 속한 개별 조직의 활동가가 아니라 활동가 조합의 상호회비를 통해 타 조직의 활동가들이 서로를 지원하는 연대, 협동의 안전망 기금인 것이다.

2018년 출장길에 사망한 활동가에게 상호부조기금 3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동행의 상호부조기금이 활동가 연대의 기금이기에 남다른 의미가 있으며, 활동가 사망 시에 부족하지만 인간적 도움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것에 시민사회에는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었다.

16년 시행하기 시작한 상호부조사업은 18년까지 총 55명, 8천 7백만원 상호부조금을 활동가들이 납부한 상호부조기금을 통해 지원하였으며, 이 중 18년에만 27명, 5천 6백만원이 지급되어 18년 한 해에 2배로 확대되었다.

(2) 경제안전망기금 사업_대출사업

활동가들은 소득이 낮은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여 고이율 대출을 사용한다거나 활동기간이 길어질 수록 적금보다는 대출 금액이 높아지는 등 경제적 취약성이 특히 심하다.

위기 시 대처 능력을 상실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때 활동가들은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며, 이는 종종 활동의 이탈로 드러난다.

전세보증금 부족하거나 누적된 가계부채, 질병에 따른 높은 의료비 부담과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가 부족 등의 이유로 긴급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필요해 진다.

동행은 외부 기금 및 자체 기금 마련을 통하여 활동가들에게 긴급생활자금대출지원을 저리로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18년 공공상생연대기금 5억 출연을 받아 청년공익활동가들에게 학자금 상환, 고이율 전환대출, 전세보증금 지원 등의 대출용도로 1인 최대 2천만원 이내 60개, 연 1%의 4개월 만예(18. 9월~12월) 42명의 활동가에게 평균 1천 2백만원의 대출지원을 통해 4억 9천만원 기금 집행이 이루어졌다.

1) 400여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한 동행은 2019년 6월 현재 1,1450명의 조합원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활동가 조직으로, 풀뿌리 지역 활동가, 인권, 생태, 복지, 여성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망기금에 대한 높은 호응은 경제적 안전망이 활동가 안전망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3) 존엄을 지켜주는 지원망_지속가능을 위한 재충전, 의료지원, 학자금지원, 응원사업 등

동행은 활동가 안전망 구축 외에도 활동가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재충전지원, 의료지원, 학자금지원, 응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재충전 지원 사업은 조합원팀 혹은 조합원 개인이 기획한 여행 프로그램에 일정 정도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동가들에게 가장 욕구가 많은 사업 중의 하나라 매해 지원 예산액을 증대하고 있다. 그만큼 재충전에 대한 요구가 큰 편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활동가들에게 소진의 경험이 잦은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3. 활동가의 건강 인식

동행은 창립 초기에서부터 빠지지 않고 지원하였던 영역 중의 하나가 ‘활동가 건강지원’이다. 초기에는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그 다음은 활동가들에게 가장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치과치료비지원 사업으로, 가장 최근에는 녹색병원과 협약으로 진행 한 초정밀건강검진 사업까지. 의료 지원은 매해 지원하는 영역 중의 하나이다. 그 사업들을 통해서 활동가 혹은 활동가가 처한 조건을 통해 활동가와 건강에 대한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속가능한 활동의 전제 조건_건강

“작은 마을단체에서 생활하다보니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급여가 많고 적음을 떠나 활동가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덜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NGO활동가들이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건강상 각종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본 의료지원 사업을 제가 신청해도 되는 건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019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의료 지원 신청 이유 중에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해야”함을 활동가들은 우선 사항으로 말하고 있다. 건강이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챙기거나 돌보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전환된다.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하니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아지기도 하는 것이다.

(2) 의료보험 사각 지대의 활동가

“쉬지 않고 활동을 하면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가만히 있어도 어지러움

증이 생기고 배탈, 설사가 반복되는 등 여러 건강상의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건강보험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공단의 건강검진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2019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의료 지원 신청 이유 중에서

“2016년 1월 집이 철거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말소가 되어 현재 직장과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은 주거권 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만 약자(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은 아직 부족합니다. 무조건 쫓아내지만 말고 주거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법을 개정하고자 힘들지만 싸우고 있습니다.

식생활 불균형과 추운 겨울 컨테이너 생활로 어지럼증과 소화불량, 가끔씩 힘들 때 대상포진이 몸에 올라오네요.

갑상선 부분에서 예전 진단을 받은적이 있는데 요즘 피로감이 극대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물류센터 알바로 허리가 종종 통증이 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검진받아 건강을 되찾고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2019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의료 지원 신청 이유 중에서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활동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최근에 가입하여 국가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3) 만성 피로로 인한 건강

“거주지는 안양인데, 활동처가 서울인지라 출근시간 문제로 식사상태가 불량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거의 편의점 음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속이 편하지 않고 거북합니다. 수면부족과 업무로 인한 만성피로증상이 있는데 질병으로 변할까봐 걱정됩니다.”

-2019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의료 지원 신청 이유 중에서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겪는 것 중의 하나가 만성피로가 아닐까 싶다. 뚜렷하게 아프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다. 안정적으로 체력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것은 자주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된다.

(4) 활동이 먼저

“불규칙적인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만성피로 개인의 몸살핌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내 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정밀종합검사를 신청합니다.”

-2019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의료 지원 신청 이유 중에서

활동의 특성상 규칙적인 건강 관리가 힘들어지고 그러다보니 건강에 대한 우선 순위도 밀려나게 된다.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지 과제 중의 하나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이야기 혹은 건강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될수록 한번은 더 건강에 대한 점검의 계기는 된다고 보여진다.

-2019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의료 지원 신청 이유 중에서

(5) 상세불명의 염좌 등 높은 치료비

“2016년부터 최근까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있다는 진단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속되는 허리 주변 근육 통증으로 인해 도수치료, 한방 치료, 근전도검사, 엑스레이, 재활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과 각종 약물(소염, 진통제)로 통증을 가라앉히고자 했으나 통증은 계속해서 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 업무특성 상 장시간을 앉아있는 사무직이나 허리 통증으로 인해 앉아서 일을 할 수 없어 근 3년을 장시간을 서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RI를 찍고 확인해보고 싶었으나 비용이 감당이 안 되어 원인을 정확히 모른 채 각종 치료만 받고 있다가 2019년 공익활동가 의료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 신청했습니다.”

-2019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의료 지원 신청 이유 중에서

뚜렷한 원인에 따른 진단보다는 상세불명에 따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치료 기간도 길고 그에 따른 높은 치료비 더욱이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치료 종료 혹은 완치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치료와 치료 종단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늘상 치료가 필요한 몸의 상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6) 자존감 저하 등 심리적 불균형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정서불안 및 자존감 저하와 같은 심리적 불균형 상태. 겉으로 밝은 척하다 보니 우울감 지속, 정신과 검진을 통해 현재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자 함”

-2019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의료 지원 신청 이유 중에서

“지난 4월에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업무과중과 직장 내 관계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면서 3주 이상 깊은 우울감과 신체기능 저하를 앓았습니다. 동료들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업무편중과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상하관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동료들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깊은 우울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원인이 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저의 상태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부터 편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왼쪽 윗가슴팍에 찌르는 듯 쪼여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장부근의 통증은 생전 처음 느끼는 것이라 걱정됩니다.”

-2019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의료 지원 신청 이유 중에서

예년과 다르게 최근에는 심리적 건강 상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심리적

건강의 문제를 '건강 상태 이상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현실을 말해주고 그로 인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7) 높은 의료비 부담

“2014년 유방암 수술, 림프선 절제까지 하여 늘 몸이 무겁고 목과 등이 많이 아파 잠을 잘 못자고 머리가 아픴, 국가지원이 끝나 자비로 검사하기에는 너무 부담되어 신청하게 됨.”

활동가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는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나 사고이다. 활동비로 부담하기 어려운 수술비, 치료비용 등으로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높은 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에는 은행, 카드 대출 등을 사용하게 되고 이는 가계 부채로 이어져 불안정한 생활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4.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안전망이 있다는 것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이 맞닥뜨린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공동체, 타인의 슬픔에 깊게 공감하고 행동하는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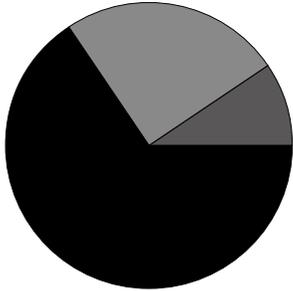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예방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나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신뢰는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시작의 발걸음이 되며, 그 시작점에서 함께 또 다른 길을 만들어 가게 될 계기가 된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막막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인가라도 있다라는 희망에 대한 믿음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러하기에 함께하는 공동체 역할이 중요하다.

동행은 어려울 때마다 등 뒤에서 밀어주거나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활동가 조합으로, 활동가의 삶도 건강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활동가의 든든한 안전망을 그려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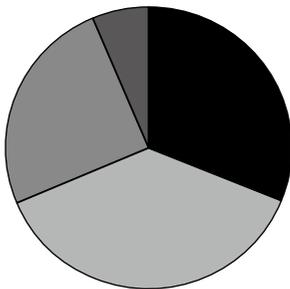
사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설문조사 결과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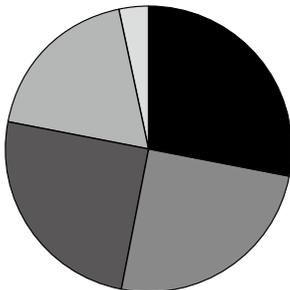
- 여성 65.6%
- 남성 25%
- 기타 9.4%

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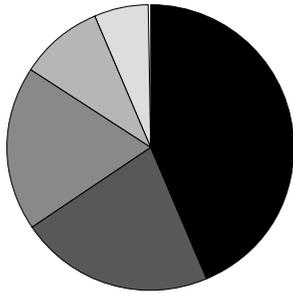
- 40대 31.3%
- 50대 6.3%
- 20대 25%
- 30대 37.5%

3. 활동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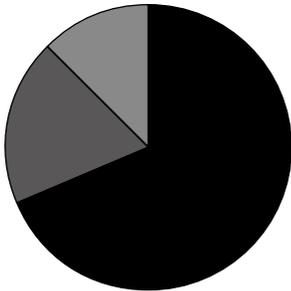
- 6-10년 28.1%
- 11-15년 25%
- 1-5년 25%
- 16-20년 18.8%
- 25년 이상 3.1%

4. 평소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 활동 시간은 주 몇 시간 가량 되나요?
(주 활동지 이외에 모든 활동에 관련된 시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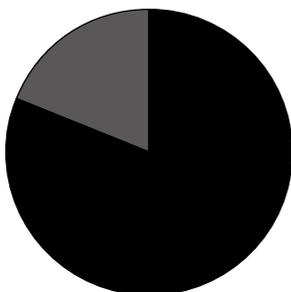
- 40-50시간 43.8%
- 30-40시간 21.9%
- 50-60시간 18.8%
- 60시간 이상 9.4%
- 30시간 미만 6.3%

5. 주말과 휴가는 보장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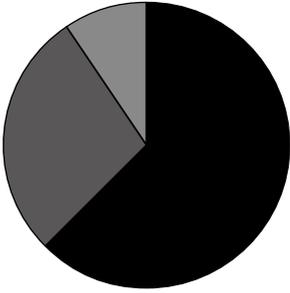
- 주말과 휴가가 모두 보장된다. 68.8%
- 주말은 보장되는 경우가 드물고 휴가만 보장된다. 18.8%
- 주말과 휴가가 모두 보장되지 않는다. 12.5%

6. 사회보장(4대 보험, 퇴직급여 등)은 이뤄지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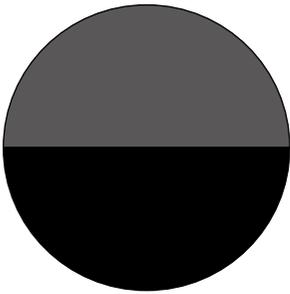
- 4대 보험 등의 사회보장에 가입되어있다. 68.8%
- 4대 보험 등의 사회보장에 가입되어있지 않다. 18.8%

7. 우리 조직은 활동가 충전 및 재생산을 위한 제도(안식년, 연수 등)를 갖추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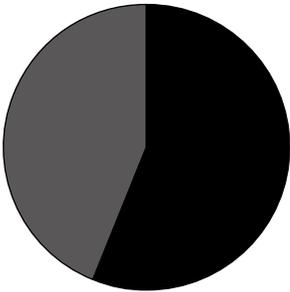
- 제도를 갖추고 있다. 62.5%
-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28.1%
-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9.4%

8. 활동비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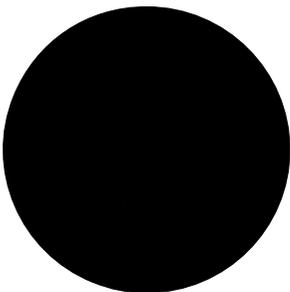
- 있다. 50%
- 없다. 50%

9. 우리 조직에서 경제적 이유로 활동을 그만 둔 사람이 있나요?



- 없다. 56.3%
- 있다. 43.8%

10.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활동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저임금(2019년 기준 1,745,150원)에 준하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100%

11. 건강 검진을 받아 본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개월수로 표기해 주세요)

19개월, 2개월, 작년에 받았어야 했는데 깜빡해서... 2년이 넘었네요, 12개월, 12개월, 3개월, 11개월, 24개월, 16개월, 없다, 7개월, 2개월, 국가건강검진표가 날라오면 그 해에 받음, 6개월, 36개월, 20개월, 48개월, 15개월, 18개월, 없음, 2개월, 3개월, 없다, 10개월, 10개월, 24개월, 20개월, 받아본 적 없음, 지역보험 가입자로 2년에 한번 기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12.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질병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당시 상황과 의견을 들려주세요.)

- ① 만성 두통이 있고, 골근격계 질환이 있으며, 시간에 쫓겨 일을 해야 했던 시기에는 이명이 오는 등의 질병이 발생
- ② 딱히 진단받은 적은 없지만 상시적으로 피로하고.. 돈과 시간이 없으니 운동을 못해서 생존체력 조차 마이너스 상태.
- ③ 있음. 대상포진. 다들 한번 쯤 걸리는 병이라 취급받음. 하루 반나절 병가냄
- ④ 단체 내 문제제기 이후 후속논의에 집중하기 어려웠음. 마음을 끊이고 바쁜 일정을 진행하다가 발병
- ⑤ 입병을 달고살고 디스크도 있습니다
- ⑥ 마감에 쫓겨 과로하던 중 역류성 식도염 발생
- ⑦ 대상포진 발생 경험 있고, 일상적인 두통과 근육통은 만성적임. 기타 지병있으나, 지병과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과로로 인한 질병발생과의 관련성 모호함.
- ⑧ 운동에 반대하는 혐오자들과 싸우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과 조현병이 악화되었습니다.
- ⑨ 정신적 스트레스, 트라우마
- ⑩ 근골격계 질환

⑪ 계속 알바를 병행해야했던 과로와 스트레스, 활동의 비전을 찾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겹쳐 심한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음.

⑫ 스트레스, 과로

⑬ 바쁜 시기에는 감기, 기관지염, 구내염 등이 생긴 적이 많고, 꼭 활동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우울 장애로 치료 중.

⑭ 조직의 내부갈등으로 원형탈모증이 왔고, 다리의 통증에도 쉬지 못해서 만성적 통증이 지속되는 중

⑮ 활동기간 10년 넘어가면서 업무가중과 일과 개인적 시간이 모호해져 휴식시간 부족으로 만성 불면증으로 전반적인 컨디션 나빠짐

⑯ 네. 몸이 힘들거나 아픈 때 대부분은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일의 과부하가 걸려있는 때인 것 같아요.

⑰ 바쁜 시기에 잠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 자주 옵니다.

13. 나의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활동이 즐겁다, 물론 피곤할 때도 있지만, 또 옳다는 믿음이 있어서, 활동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꿈이었기때문에, 개인적 신념, 당위, 소통의 즐거움,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함께하는 활동가, 나부터 잘 살고 싶어서..?, 재미, 의미, 다른 세상을 향한 지향, 가치지향을 공유하는 동지들, 사회가 바뀌는 걸 바라보겠다는 희망이요, 보람, 의미,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게 하는 급여, 즐겁고 자유로움, 옳은일에 대한 자부심,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하는 작당모의의 즐거움, 성취감과 일상의 만족감, 성취감, 지속가능성, 비전, 계속 해오던 거라서..., 가치와 신념, 함께 활동하는 동료 활동가들과 일과 일상을 공유하며 지지적인 관계로 활동 지속할 에너지 얻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함께 하는 것, 작은 변화라도 함께 만들고 그 일원이라는 것, 배울 수 있는, 배우게 되는 것들이 계속 있다는 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책임감, 함께하는 동료들.

14. 활동 과정에서 나의 건강을 가장 손상시키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야간에 주로 일이 집중 된다는 생각에 늦게까지 일을 함. (출근을 늦게 하는 것으로 조정), 잤은 뒤풀이, 일을 하고 또 해도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는 일과 사람 부족. 사람을 채용할 돈이 없으니깐, 팀원 간

갈등, 불규칙한 활동리듬, 스트레스, 무력감, 소통의 어려움. 권력이 있는 이들이 그에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김, 여성/장애/퀴어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현실. 성적 대상화. 성폭력, 노동시간, 촉박한 마감, 역량 부족이라 느낄 수 밖에 없는 정답없는 어려운 상황들, 반대자들의 혐오발언이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주변의 기대와 스스로 가지는 의무감, 탄력적이거나 유연하지 못한 조직, 스트레스 (업무량보다는 역량부족에 대한 압박감과 자책감이 더 큼), 스스로의 기준과 목표. 무리한 책임, 병원에 갈시간과 돈이었다, 그만둘수 없는 대체인력부족, 재정적 열악함으로 활동가 총원의 어려움, 활동 연차가 길어도 인력부족으로 여전히 현장일을 하면서 에너지 고갈로 건강상태 나빠짐, 일하는 시간이 길다, 일할 때 몸의 자세, 침의 부족, 낮은 활동비로 인한 생계와 미래 걱정, 일차적으로는 제 생활습관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15. 나의 건강권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규칙적인 생활, 운동? 하지만, 건강한 활동을 위해서 개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할 듯, 조직내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등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돈과 시간, 일할 사람이 많아지면 내 노동시간도 줄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무시간 조절, 업무 분장, 삶에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것.. 여유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관계, 성폭력 사건의 재조사 및 해결, 업무량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다스리기, 경제적, 정신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운동, 조직/운동에서 활동가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 태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진비와 진료비 지원과 충분한 휴식과 병가, 요양휴가/휴직 보장과 같은 체계, 주2일 휴무 보장 및 월급 증액, 활동과 일상을 분리할 수 있는 여유. 그래야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함, 일이 아닌 관계를 위한 시간, 대체휴가, 의료지원비, 시간, 안정적이고 충분한 활동비, 실무 총원, 스트레스를 풀수있는 취미 갖는 것, 정기적인 상담을 받는 것 스스로 성찰할 시간이 필요, 양질의 식사(를 하기 위한 시간과 돈), 침과 재충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사회 내부의 인식 공유, 습관 개선, 나를 위하는 방법을 아는 것?

16. 기타 활동가 건강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활동가의 건강한 삶은 지속되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원일 때가 많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에 더하여 지니... 건강을 위한 활동 보다는 우선은 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다. 함께 일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기고 하고, 때로는 해야 하는 일이어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쉽지 않네요, 저는 그래도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편이니 다른 활동가들에 비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슬프네요, 충분히 쉬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쉬는 걸 죄악시하거나 무능력하거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각 활동가의 뿌리 깊은 편견이 사라져야 합니다, 업무가 많고 후달려도 관계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사실 다 넘어가지기도 한다. 힘들때 힘들다고 말할수 있으니까.. 불건강을 마주할때 핵심은 '말할수없음/말하기어려움'이다, 활동가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들이세요, 너무 많은 사회운동단체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활동가의 정신 육체적 건강 챙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해요, 나이가 들면서 자

연스럽게 크게 아프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몇 년 전 크게 아팠을 때, 제가 속한 단체에서는 6개월의 장기 유급 병가를 보장해 주지 않았다면 회복도, 활동의 지속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요양을 마치고 무사히 잘 복귀해서 다시 몇 년 동안 활동을 잘 하고 있으니깐요. 아프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팠을 때 잘 낫게 해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활동가들에게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전반적인 기반과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항상 고민되네요. 이런 포럼에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좋은 생각들과 실천들이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2일 이상은 아무 생각 없이 폭 쉴 수 있고, 현실적인 급여를 통해서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야 건강할 수 있다, 우울증을 겪어보니 마음의 병은 결국 신체화되서 몸도 망가지더군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문제가 개인이 아니라 운동과 조직의 목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활동가부터 시작합시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제 헌신만으로 일하는 것은 그만! 제대로 쉬어야 합니다. 자기 활동비도 챙기시다, 정기적인 재충전과 활동에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재교육이 필요, 서로의 휴식을 독려할 수 있는 동료관계나 조직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와 별개로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서비스 지원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픈 활동가들 소식을 접하고 많이 미안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못한 건 아닌가. 왜 보이는 것만 다일 거라고 생각했나. 그래서 이러한 화두를 운동사회에서 함께 고민하게 된 것이 반가운데, 여전히 개인의 몫을 더 크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보장(꼭 4대 보험이 아니더라도)이나 쉼 제도 등 조직 안팎으로 제도적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설문지 주관식 내용을 가능한 그대로 모두 실고자 하였으나, 지면 관계 등의 이유로 모든 내용을 실지는 못했음을 밝힙니다.>

차별에 저항한 영상활동가 故 박종필 감독 2주기 추모포럼

2차 웹자보

2년 전 불현듯 그가 떠났고, 그 이후에도 많은 활동가들의 질병과 죽음 소식이 들려옵니다. 박종필추모사업회는 더 이상 동료 활동가들을 비극적으로 잃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고민합니다. 2주기를 맞아 <사회운동활동가의 건강권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의와 포럼을 엮니다. 또한 <묘소참배와 영화보기>를 통해 그의 활동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강의 및 포럼_ "사회운동 활동가의 건강권을 묻다"

1. 강의

장소 416연대 강당 (종로구 대학로45 임호빌딩 4층)

1강	활동가의 잘 아플 권리를 찾아서	연사 조한진희(반다)_ 박종필추모사업회
	7월 12(금) 7시	
2강	떠나지 않는 활동, 가능할까	연사 이조은_ 참여연대 노동조합
	7월 19일(금) 7시	

2. 포럼

장소 4.16연대 강당 일시 7월 24일(수) 2사-6시

여는 발언 **박래군** 416연대, **박경석** 전장연

영상보기 활동과정 건강이 손상된 활동가들의 스피치아웃

전시 활동가들의 건강권에 대한 목소리

발표

기조발제_ 지금 여기 활동가의 건강권	조한진희 박종필추모사업회(준)
비탄에 빠진 피해자와 함께하는 활동가의 트라우마, "나는 국가폭력 피해자가 아닌가"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의 현실과 건강권	강동진 사회변혁노동자당
제도 밖에서 나이 드는 삶,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까	나영 성과재생산포럼
우리는 일'만'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운동의 지향과 공동체의 일상은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	은사자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마음 길을 함께 걷다	오현정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통 / 외락치유단
활동가의 건강권과 노조	서상희 의료연대본부 시민건강연구소 분회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성과 건강	여진 공익활동가 사회적 조합 동행

묘소참배 및 영화보기

1. 묘소참배 7월 28일(일) 11시, 마석모란공원
2. 추모사업회 총회 7월 28일(일) 4시, 노들장애인야학(종로구 동숭길 25, 4층)
3. 박종필 영화 다시보기 및 대담_ 뒤끝작렬 7월 28일(일) 5시, 노들장애인야학

영화 시설장애인의 역습

대담 김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와 박경석(전장연)의 묻고 답하기_ 탈시설 운동의 현재와 미래

* 사전신청 <https://bit.ly/30gMcVB>

* 활동가 건강권 설문 <https://bit.ly/30gMcVB>

차별에 저항한 영상활동가 박종필 추모사업회(준)

대표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래군(4.16연대 대표)

김종언(아랫마을 홈리스야학)

집행위원장

조한진희(다큐인 운영위원)

공동대표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리스행동 4.16연대

단체회원

노들장애인이야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홈리스야학

개인회원

강혜민 공태윤 권오현 권혁이 김동림 김민정 김상희 김성연 김일권 김종환 김준희 김진수
김지은 김혜정 김필순 나해니 류미례 무명 문상민 문애린 박경석 박김영희 박미애 박사라
박온슬 박옥순 박정숙 박재희 박주원 박태환 박현영 송상희 성상민 수리야 신안수 양유진
여준민 오상만 윤재선 윤제영 이경숙 이기풍 이동현 이선일 이승현 이원교 이정훈 이지연
이현아이헌체 이형숙 임소연 임영희 정다운 정종민 정찬미 최병덕 최성애 장은하 정우영
정은희 정주연 조경미 조민정 조아라 조재범 조현수 진냥 최경덕 최재민 최재선 한규선
한명희 한혜선홍은애 홍형숙 황인현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외로운, 거절당한, 캄캄한 거리의 카메라였던 영상활동가 박종필 감독이 우리 곁을 떠난지 2년이 되었습니다. 2주기를 맞이하여 보고 싶은 박종필 감독을 추모하고, 그가 기록했던 발자취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외되고 차별받는 현장을 기록했던 박종필 감독의 카메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추모사업회에 함께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박종필 추모사업회는?

보고싶습니다_ 박종필 기일 추모행사

기억하겠습니다_ 박종필 작품 상영회

기록하겠습니다_ 박종필 다큐포럼, 후배양성·지원 등

추모사업회 회원이 되려면,

단체회원, 개인회원 모두 가능합니다.

월 회비 또는 1년 한번 회비로 함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추모사업회 회원 회비 규정

- 1) 공동대표 단체 / 매월 10만원 이상(재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로 함)
- 2) 단체회원 / 매월 2만원 이상
- 3) 개인회원 / 매월 5천원 이상

박종필 추모사업회 통장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3-484791 예금주(사단법인 노들/다큐인)

문의 docuin@gmail.com



차별에 저항한 영상활동가 박종필 추모사업회(준)

